

글로벌 펀드플로우 주간 리포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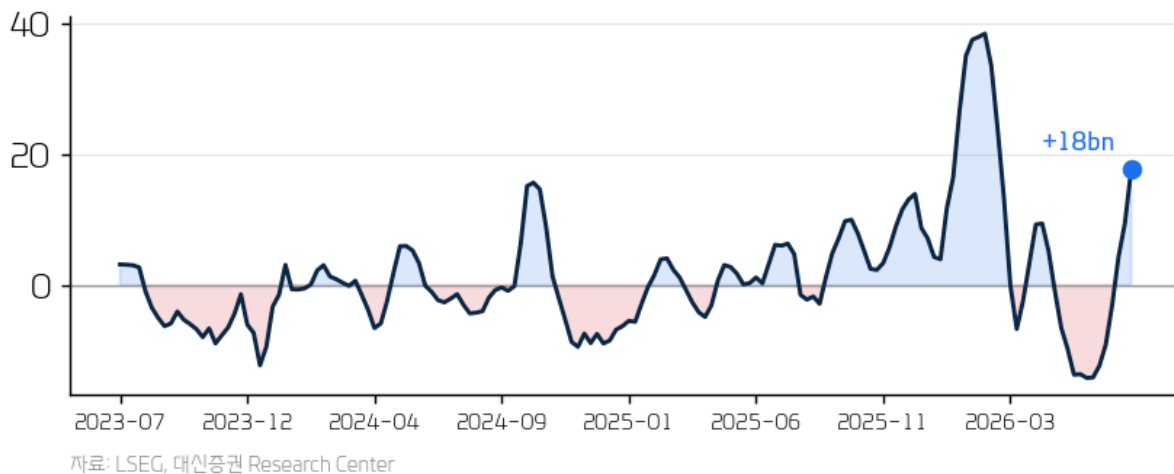
2026.08.10 · 데이터 마감 2026.08.05(수) 주간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

위험자산 쏠림이 뚜렷하다. 주식·채권·대체투자에 동시에 돈이 들어오면서,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4 주간 1,484 억달러 더 받았다 — 최근 5 년과 비교해 상위 4% 수준의 쏠림이다.

전체 순유입(4 주) +82.2 bn · 위험선호는 최근 5 년 중 상위 4% 수준 · 주식 4 주 유입은 2000 년 이후 상위 6% 수준

이번 주 주인공: 신흥 주식 —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 ·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7%



Comment

- 전체 펀드에 이번 주 1,111 억달러 순유입, 4 주 누적은 822 억달러
-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4 주간 1,484 억달러 더 받음 — 최근 5 년 중 상위 4%
- 주식형 펀드에 4 주간 727 억달러 순유입,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17%
- 대체투자는 굴리는 돈 대비 4 주 유입이 2.39% — 최근 5 년 중 상위 1%의 극단
- 머니마켓은 이번 주 561 억달러 유입에도 4 주로는 850 억달러 순유출

이번 주 그림은 단순하다. 주식·채권·대체투자에 동시에 돈이 들어오면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4 주간 1,484 억달러를 더 받았다. 최근 5 년과 비교하면 상위 4% 수준의 쏠림이다. 주식은 4 주 727 억달러로 금액이 가장 컸다. 굴리는 돈 대비로는 0.26%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최근 5 년 중 상위 17%에 해당한다. 돈이 들어온 주식펀드 비율도 50.2%로 최근 3 년 중 상위 6% — 소수 펀드 쏠림이 아니라 넓게 퍼진 유입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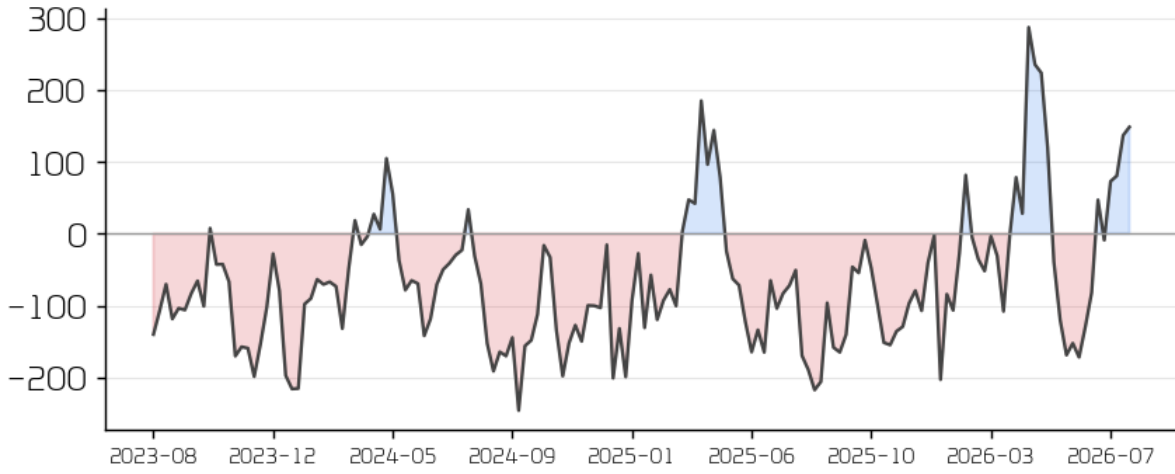
엇갈리는 곳은 두 군데다. 머니마켓은 이번 주 561 억달러가 들어왔지만 4 주로 보면 850 억달러가 빠졌다. 대체투자는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1%인데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최근 3 년 중 하위 1%다. 금액은 극단적으로 크되, 소수 펀드에 집중됐다는 뜻이다.



위험선호 — 현재 「위험선호」 국면

● 위험선호 (Risk-On) 위험자산-안전자산 4 주 +148.4 bn · 위험선호 강도는 최근 5 년 중 상위 4%

위험선호 지표 (위험자산 vs 안전자산, 4 주누적 USD b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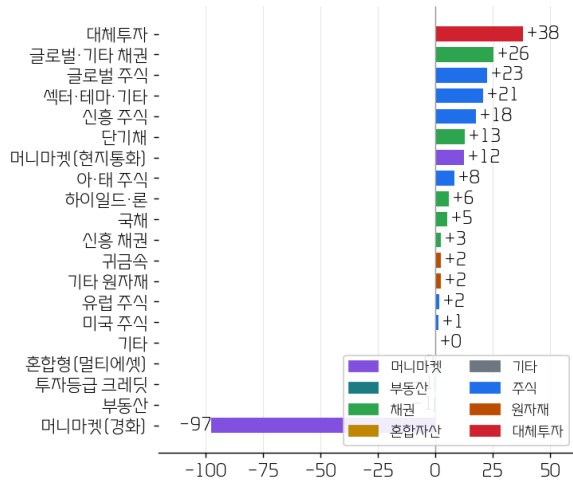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주식: 4 주 727 억달러로 금액이 가장 크다. 굴리는 돈 대비로는 0.26%로 채권(0.57%)·대체투자(2.39%)보다 낮지만, 덩치가 워낙 커서 이 비율만으로도 최근 5 년 중 상위 17%에 해당하는 뚜렷한 유입이다.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50.2%, 최근 3 년과 비교하면 상위 6% — 넓게 퍼진 유입이다.
- 채권: 4 주 518 억달러로 금액은 두 번째지만, 굴리는 돈 대비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37%로 평상 범위다. 금액은 크되 강도는 튀지 않는다.
- 대체투자: 금액(4 주 384 억달러)은 주식·채권보다 작아도 굴리는 돈 대비 2.39%로 압도적이고,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1%다. 반면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42.8%로 최근 3 년 중 하위 1% — 일부 펀드로 자금이 몰린 결과이지 시장 전반에 퍼진 유입은 아니다.
- 머니마켓: 4 주 누적으로는 850 억달러 순유출인데 이번 주에는 561 억달러가 들어왔다.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의 위치는 최근 3 년 중 상위 19%로 높은 편이다. 다수 펀드에는 돈이 들어오고, 일부 대형 펀드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구도다.
- 원자재: 4 주로는 47 억달러 순유입이지만 13 주로는 27 억달러 순유출이다. 방향이 최근예야 돌아섰고,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29%로 평상 범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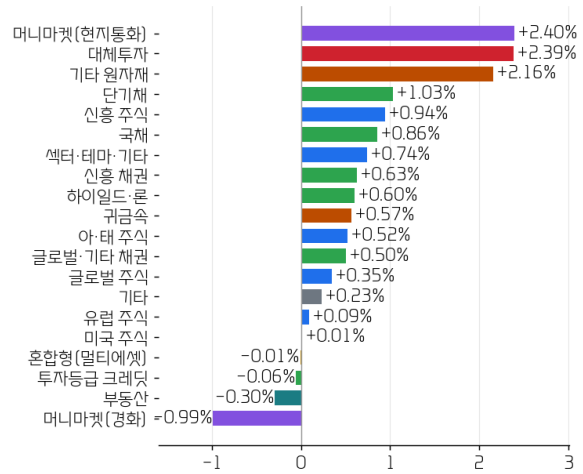
권역·테마 — 규모(절대금액) vs 강도(자산대비)

권역·테마 그룹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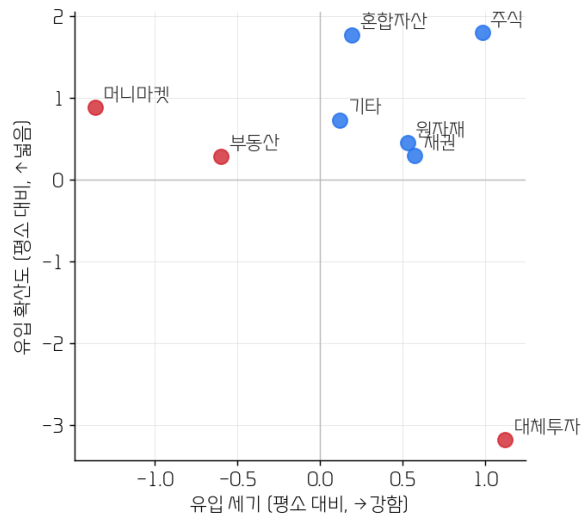
권역·테마 그룹 4 주 유입강도 (순유입 ÷ 자산, %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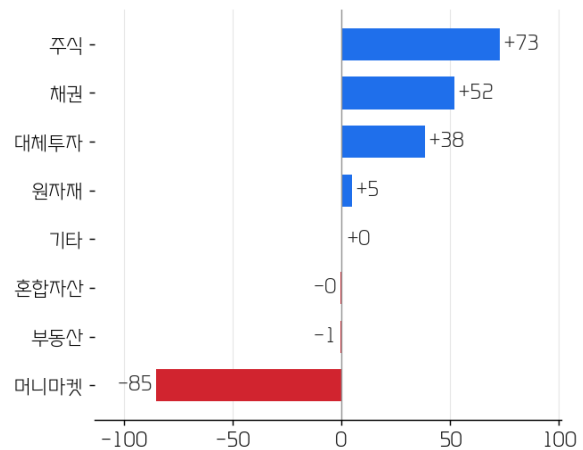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자산군 — 강도·참여폭

유입 세기 × 확산도 신호 사분면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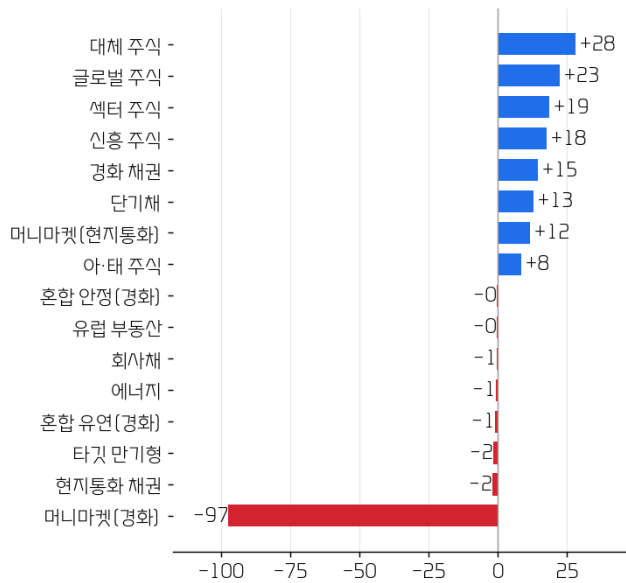
매크로 자산군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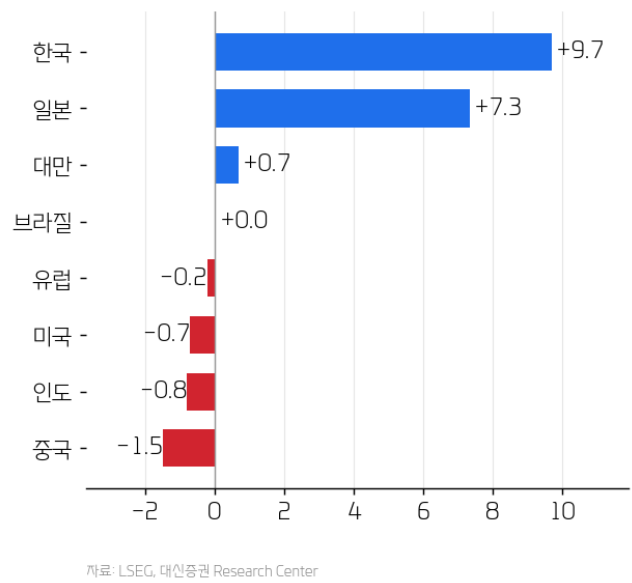
섹터·지역 로테이션

섹터·지역 로테이션 — 4 주 순유입 상·하위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주식 국가별 4 주 순유입 (USD bn, 참고·비합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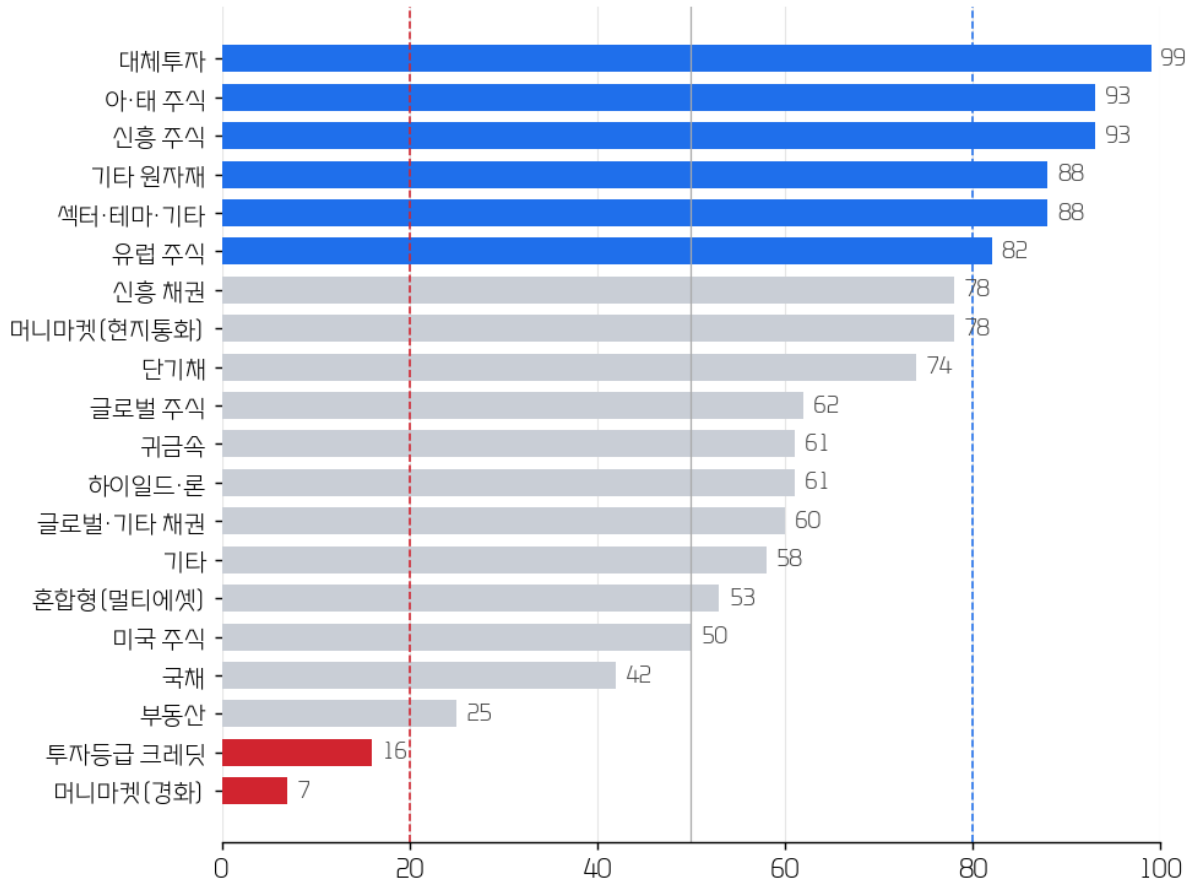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주식 안에서 미국은 비어 있다. 미국 주식은 4 주 15 억달러 유입에 그쳐 유입 세기가 최근 5 년 중 상위 50%, 딱 평균이다. 반면 신흥 주식(177 억달러)과 아·태 주식(84 억달러)은 나란히 최근 5 년 중 상위 7%, 섹터·테마 주식(208 억달러)은 상위 12%, 유럽 주식(18 억달러)은 상위 18%로 뚜렷하게 강했다.
- 채권 금액은 글로벌·기타 채권(256 억달러)과 단기채(129 억달러)가 이끌었지만 유입 세기는 둘 다 평상 범위다. 투자등급 회사채만 4 주 5 억달러 순유출로, 자금 흐름이 최근 5 년 중 하위 16%에 해당할 만큼 유출이 뚜렷하다.
- 안전자산 안에서도 통화별로 방향이 갈렸다. 경화(달러 등 주요 통화) 머니마켓에서 4 주간 974 억달러가 빠져나간 반면, 현지통화 머니마켓에는 124 억달러가 들어왔다.
- 국가별로는 한국(4 주 97 억달러, 이번 주 33 억달러)과 일본(73 억달러, 이번 주 31 억달러)이 아시아 유입을 이끌었다. 중국은 4 주간 15 억달러, 인도는 8 억달러가 빠졌다.

신호 · 역사적 극단

유입 세기의 5 년 내 위치 (0~100) — 80 위는 과열권, 20 아래는 침체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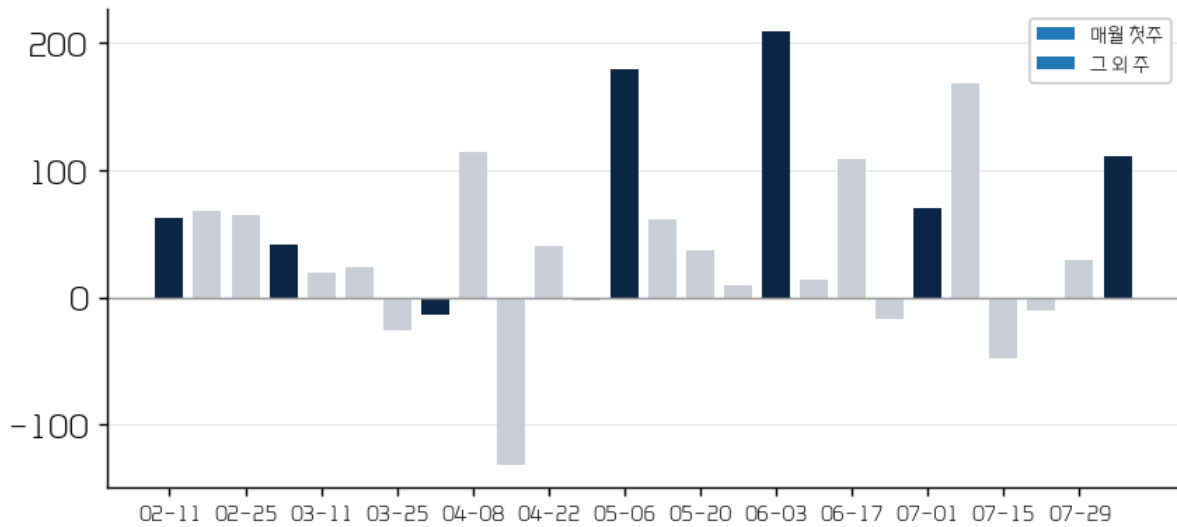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이번 주 가장 이례적인 대목은 대체투자다. 굴리는 돈 대비 유입 세기는 최근 5 년 중 상위 1%인데,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은 최근 3 년 중 하위 1%다. 방향이 정반대인 두 신호가 동시에 극단에 있다. 일부 펀드가 유입을 사실상 독점한 형태여서, 이 흐름이 더 넓게 퍼지는지가 관건이다.
- 혼합자산도 비슷하다. 4 주 순유입은 사실상 없는데(-2 억달러)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의 위치는 최근 3 년 중 상위 3%다. 다수 펀드에 소액이 들어오고 일부에서 더 큰 금액이 빠져나가며 상쇄된 모습이다.
- 주식 4 주 유입 금액 727 억달러는 2000 년 이후 모든 주와 비교해 상위 6%다. 다만 굴리는 돈 대비 세기로 보면 최근 5 년 중 상위 17% — 금액 자체는 역사적으로 굵직해도, 시장이 커진 것을 감안하면 강도는 그보다 덜하다.
-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4 주 자금 격차 1,484 억달러는 최근 5 년 중 상위 4%로 극단에 가깝다. 이 격차가 유지되는지, 되돌려지는지가 다음 주 확인 지점이다.

유의점 · 해석 한계

주간 총 순유입 (USD bn) — 진한 막대 = 매월 첫 주(월간 보고 펀드 반영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- 머니마켓처럼 이번 주(561 억달러 유입)와 4 주 누적(850 억달러 유출) 숫자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. 월간으로만 실적을 보고하는 펀드의 데이터가 월초 주간에 몰려 반영되기 때문이다. 한 주 치 숫자만 보고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.
- 대체투자·혼합자산처럼 유입 금액과 돈이 들어온 펀드 비율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금액만 보면 시장 전체의 선호로 오해하기 쉽다. 두 지표를 함께 봐야 폭넓은 매수인지 소수 쏠림인지 갈린다.
- 국가별 수치는 참고용으로 따로 집계된 값이다. 미국은 주식 그룹 기준 4 주 15 억달러 유입이지만 국가 기준으로는 7 억달러 유출로 잡힌다. 두 수치를 섞어 비교하면 안 된다.

자산군별 상세

앞의 큰 그림을 자산군마다 한 단계(권역·스타일·듀레이션·통화) 더 내려본다. 주식·대체투자·채권·머니마켓은 세부 종목까지, 나머지는 중분류까지. 규모가 미미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꼬리는 제외했다. 절대금액(bn)은 굴리는 자산이 큰 시장(미국 등)이 늘 상위에 오므로, 강도(자산대비%)를 함께 봐야 규모 효과를 걷어내고 실제로 세계 들어온 곳이 보인다.

주식 4 주 +72.7 bn

중분류	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글로벌 주식		+5.3	+22.5	31%	+0.3%
섹터 주식		+3.4	+18.7	26%	+0.8%
신흥 주식		+8.5	+17.7	24%	+0.9%
아·태 주식		+3.4	+8.4	12%	+0.5%
유럽 주식		+0.4	+1.8	2%	+0.1%
북미 주식		+0.6	+1.5	2%	+0.0%
기타 주식		+0.2	+1.5	2%	+2.8%
부동산 주식		+0.1	+0.4	0%	+0.2%
테마 주식		-0.6	+0.3	0%	+0.1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	강도(자산대비%)
글로벌	글로벌 주식	+3.8	+16.6		+0.4%
IT 섹터	섹터 주식	+1.4	+12.6		+1.1%
한국	신흥 주식	+3.3	+9.7		+6.7%
신흥 전반	신흥 주식	+4.8	+9.6		+0.7%
일본	아·태 주식	+2.8	+7.2		+0.6%
미국(광의·대형)	북미 주식	+0.5	+7.0		+0.1%
미국 중소형	북미 주식	-1.5	-10.7		-0.6%
Global ex US Sm&Mid Cap	글로벌 주식	-0.4	-2.2		-1.8%
UK	유럽 주식	-0.7	-1.6		-0.7%
중국	신흥 주식	+0.1	-1.3		-1.3%
아·태(일본 제외)	아·태 주식	+0.1	-0.9		-0.4%
커뮤니케이션 섹터	섹터 주식	-0.1	-0.8		-1.7%

대체투자 4 주 +38.4 bn

이 자금의 68%는 사실상 레버리지 주식 한 갈래 (+26.1 bn)

중분류	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대체 주식		+15.3	+28.2	74%	+6.6%
리퀴드 대체		+2.2	+6.3	16%	+0.9%
절대수익		+0.1	+2.5	6%	+2.3%
대체 채권		+0.2	+1.3	3%	+0.4%
헤지펀드		-0.1	+0.1	0%	+0.3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	강도(자산대비%)
레버리지 주식	대체 주식	+14.9	+26.1		+11.2%
상대가치	리퀴드 대체	-0.3	+4.5		+1.4%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EUR Low	절대수익	+0.0	+1.4	+11.0%
Credit Focus	대체 채권	+0.6	+1.1	+0.5%
주식 마켓뉴트럴	대체 주식	+0.1	+1.0	+2.4%
롱숏 주식(미국)	대체 주식	+0.3	+0.7	+1.2%
글로벌 매크로	리퀴드 대체	+0.0	+0.5	+1.3%
전용 숏(하락 베팅)	리퀴드 대체	+1.7	+0.5	+3.2%
롱숏 주식(글로벌)	대체 주식	+0.1	+0.6	+1.6%
관리형 선물(CTA)	리퀴드 대체	+0.6	+0.7	+1.5%

채권 4 주 +51.8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경화 채권	+4.1	+14.7	28%	+0.5%
단기채	+3.4	+12.9	25%	+1.0%
글로벌 채권	+1.8	+7.1	14%	+0.6%
기타 채권	+0.8	+5.8	11%	+1.2%
국채	-0.7	+5.1	10%	+0.9%
하이일드	+3.6	+3.2	6%	+0.4%
뱅크론	+0.9	+2.9	6%	+1.3%
신흥 채권	+0.5	+2.6	5%	+0.6%
회사채	-0.2	-0.5	-1%	-0.1%
현지통화 채권	-0.3	-2.0	-4%	-0.6%
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강도(자산대비%)
글로벌 채권(USD)	글로벌 채권	+1.0	+5.9	+1.1%
USD Government Short Term	단기채	+1.5	+5.5	+1.6%
미국채 단기	단기채	+1.1	+4.4	+0.9%
Other	기타 채권	+0.4	+4.4	+2.0%
미 면세 MMF	경화 채권	+2.2	+3.6	+2.8%
Loan Participation Funds	뱅크론	+0.9	+2.9	+1.3%
미 회사채	회사채	-0.2	-2.1	-0.8%
원화 채권	현지통화 채권	-0.7	-1.9	-5.4%
유로 회사채	회사채	+0.3	+0.5	+0.2%
GBP Inflation Linked	경화 채권	+0.0	+0.5	+2.1%
USD Municipal Short Term	단기채	+0.1	+0.5	+1.1%
EUR	경화 채권	+0.1	+0.6	+0.4%

머니마켓 4 주 -85.0 bn

이 자금의 84%는 사실상 미 달러 MMF 한 갈래 (-71.6 bn)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머니마켓(현지통화)	-0.4	+11.6	-14%	+2.7%
머니마켓(기타)	+1.0	+0.9	-1%	+0.9%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머니마켓(경화)	+55.4	-97.4	115%	-1.0%
세부 종목	소속	1 주(bn)	4 주(bn)	강도(자산대비%)
TRY	머니마켓(현지통화)	+0.3	+5.0	+9.6%
원화 MMF	머니마켓(현지통화)	-2.2	+4.1	+2.8%
SAR	머니마켓(현지통화)	-0.4	+0.9	+3.6%
글로벌 MMF	머니마켓(기타)	+1.0	+0.8	+0.9%
MYR	머니마켓(현지통화)	+0.2	+0.6	+6.3%
MAD	머니마켓(현지통화)	+0.0	-0.6	-4.4%
미 달러 MMF	머니마켓(경화)	+55.0	-71.6	-0.9%
유로 MMF	머니마켓(경화)	-3.3	-26.6	-2.2%

혼합자산 4 주 -0.2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혼합 중립(경화)	+0.5	+2.2	—	+0.3%
혼합 기타	+0.1	+0.4	—	+0.4%
혼합 중립(현지)	+0.0	+0.4	—	+0.5%
혼합 안정(현지)	+0.1	+0.1	—	+0.1%
혼합 유연(현지)	+0.0	+0.1	—	+0.3%
혼합 적극(현지)	-0.0	-0.1	—	-0.1%
혼합 적극(경화)	+0.1	-0.1	—	-0.0%
혼합 안정(경화)	-0.0	-0.3	—	-0.1%
혼합 유연(경화)	+1.4	-1.1	—	-0.1%
타깃 만기형	-0.0	-1.8	—	-1.2%

원자재 4 주 +4.7 bn

중분류	1 주(bn)	4 주(bn)	비중	강도(자산대비%)
복합 원자재	-0.1	+2.8	59%	+3.3%
귀금속	+0.3	+2.4	51%	+0.6%
기타 원자재	-0.0	+0.2	4%	+3.5%
산업금속	-0.0	+0.0	0%	+0.5%
농산물	-0.0	-0.1	-1%	-2.8%
에너지	-0.2	-0.6	-13%	-5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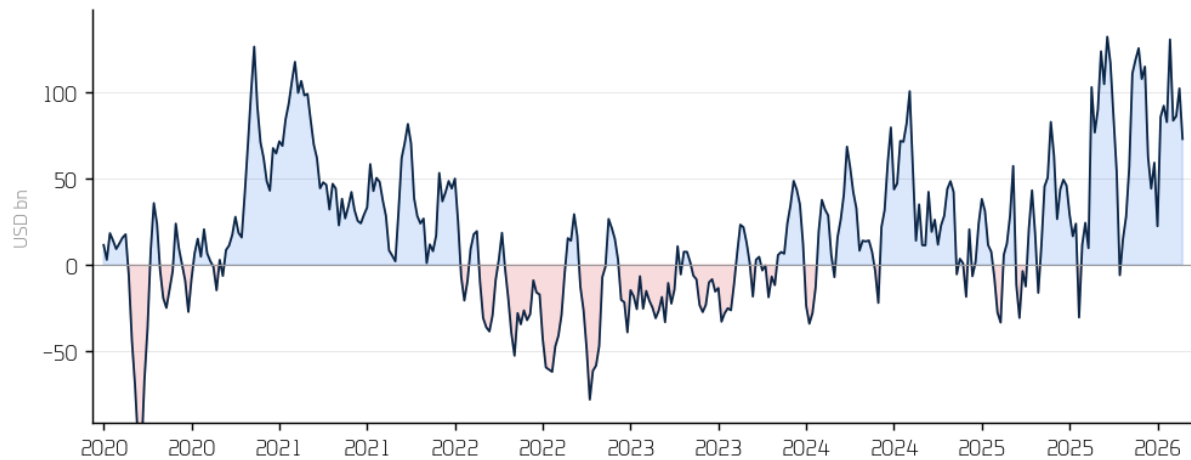
강도(자산대비%) = 4 주 순유입 ÷ 그 항목이 굴리는 자산. 절대금액이 커도 강도가 낮으면 '덩치라서 큰 것', 작아도 강도가 높으면 '세게 들어온 것'(자산 \$10 억 미만은 노이즈라 「—」). 비중 = 그 중분류가 자산군 순유입에서 차지하는 몫(순액 작은 자산군은 왜곡되어 「—」). 세부 종목은 4 주 순유입 규모가 큰 상·하위만 추렸다.

부록 — 권역·테마 그룹 (4 주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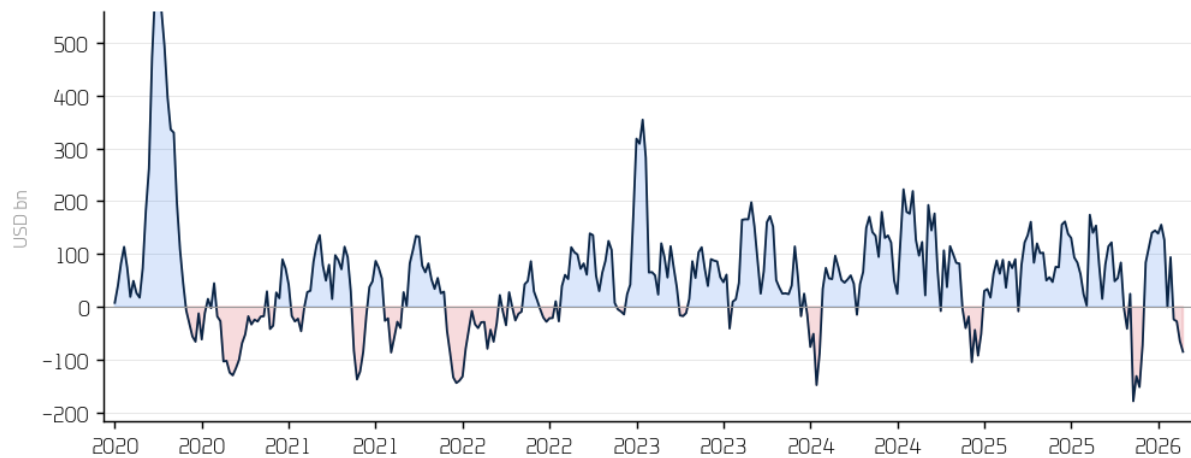
그룹	자산군	4 주 금액(bn)	자산대비(%)	5 년 내 위치
대체투자	대체투자	+38.4	+2.39	상위 1%
글로벌·기타 채권	채권	+25.6	+0.50	상위 40%
글로벌 주식	주식	+22.5	+0.35	상위 38%
섹터·테마·기타	주식	+20.8	+0.74	상위 12%
신흥 주식	주식	+17.7	+0.94	상위 7%
단기채	채권	+12.9	+1.03	상위 26%
머니마켓(현지통화)	머니마켓	+12.4	+2.40	상위 22%
아·태 주식	주식	+8.4	+0.52	상위 7%
하이일드·론	채권	+6.1	+0.60	상위 39%
국채	채권	+5.1	+0.86	하위 42%
신흥 채권	채권	+2.6	+0.63	상위 22%
귀금속	원자재	+2.4	+0.57	상위 39%
기타 원자재	원자재	+2.3	+2.16	상위 12%
유럽 주식	주식	+1.8	+0.09	상위 18%
미국 주식	주식	+1.5	+0.01	상위 50%
기타	기타	+0.4	+0.23	상위 42%
혼합형(멀티에셋)	혼합자산	-0.2	-0.01	상위 47%
투자등급 크레딧	채권	-0.5	-0.06	하위 16%
부동산	부동산	-0.6	-0.30	하위 25%
머니마켓(경화)	머니마켓	-97.4	-0.99	하위 7%

부록 — 6 대 자산군 자금흐름 추이 (4 주누적, 2020~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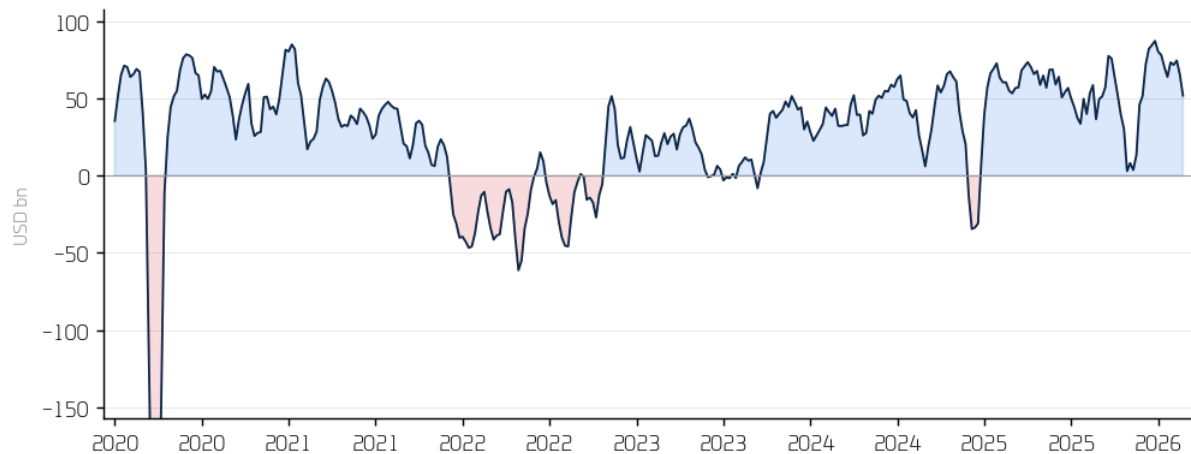
주식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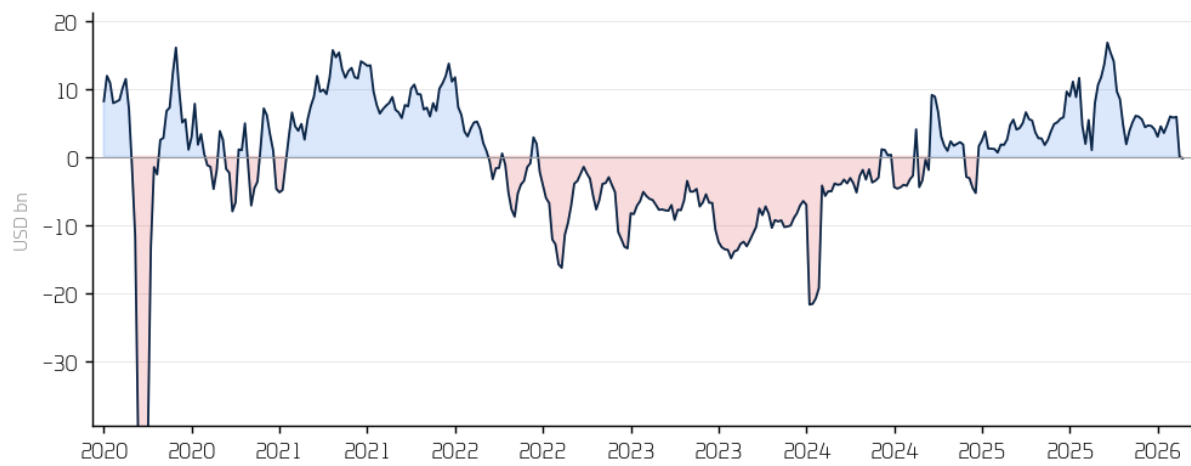
머니마켓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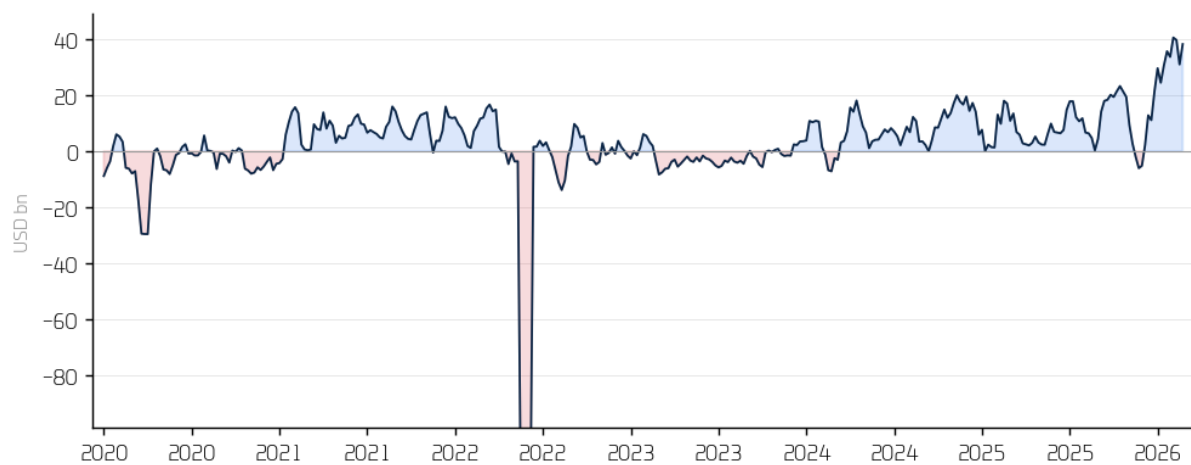
채권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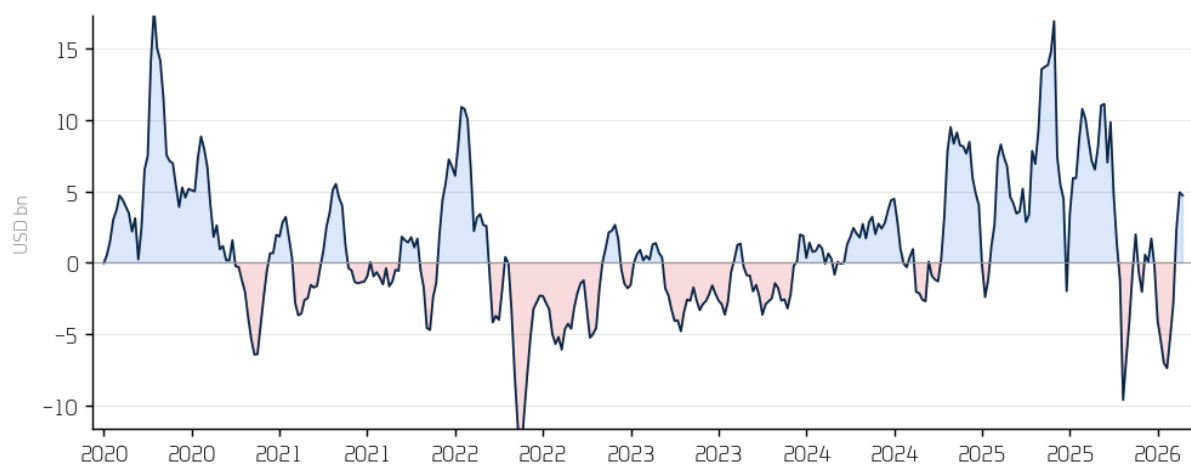
혼합자산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대체투자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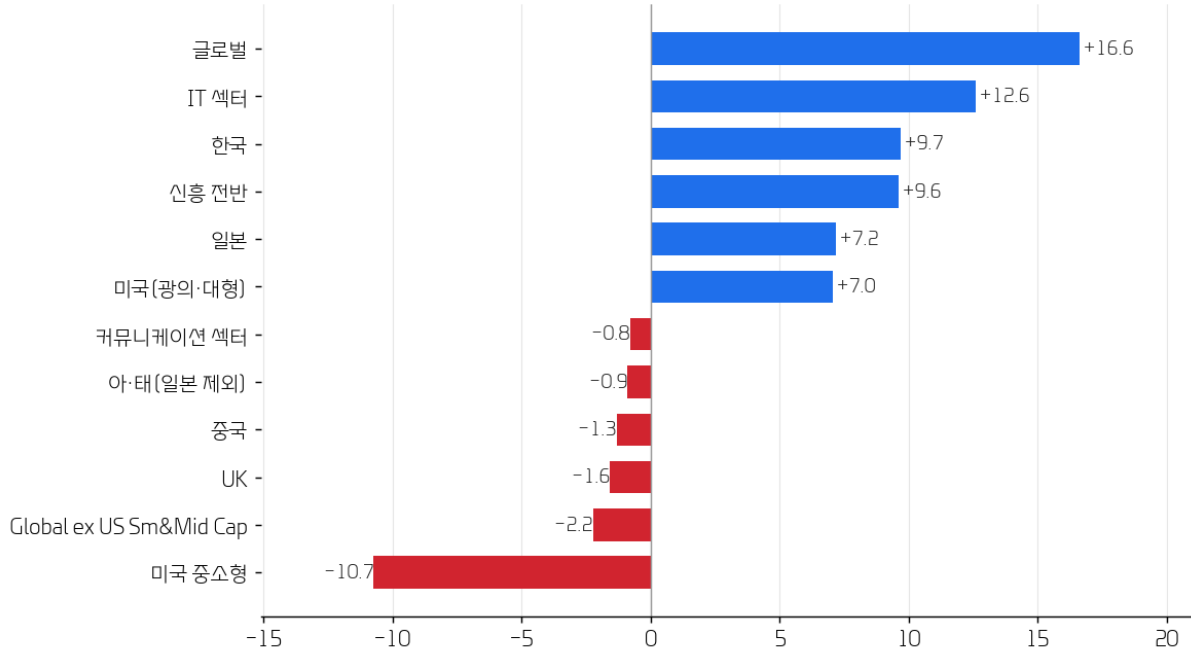
원자재 — 4 주누적 순유입 (USD bn)



부록 — 자산군별 세부 차트 (4 주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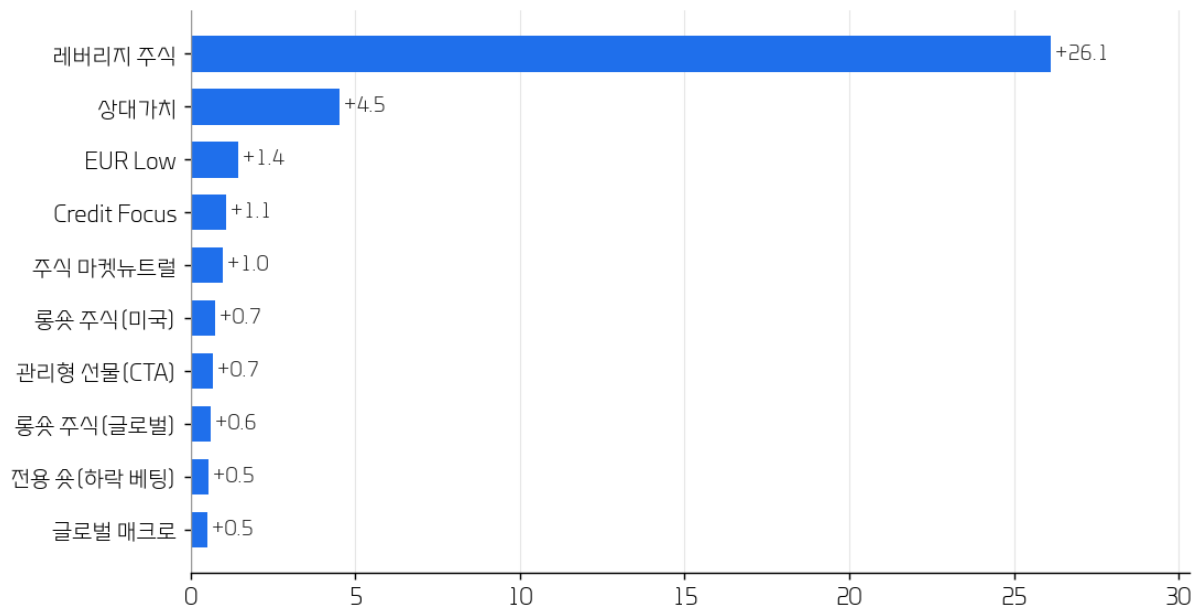
본문 「자산군별 상세」 표를 자산군마다 막대로. 절대금액(bn) 기준이라 규모 큰 항목(미국 등)이 길게 나타난다 — 자산대비 강도는 상세표를 함께 보라.

주식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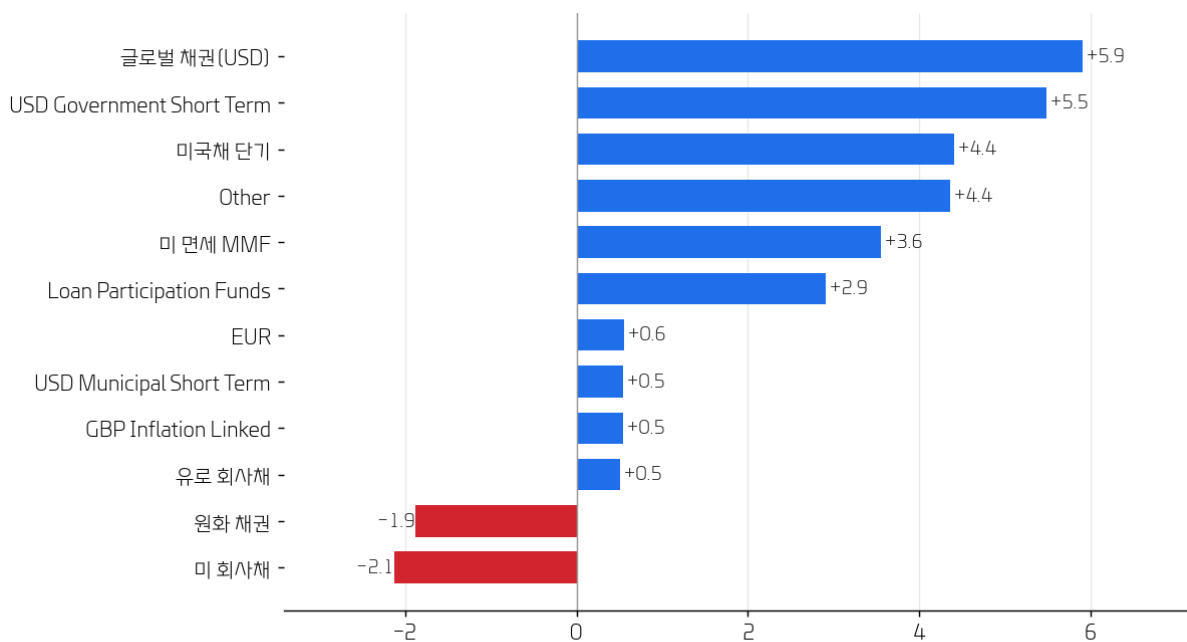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대체투자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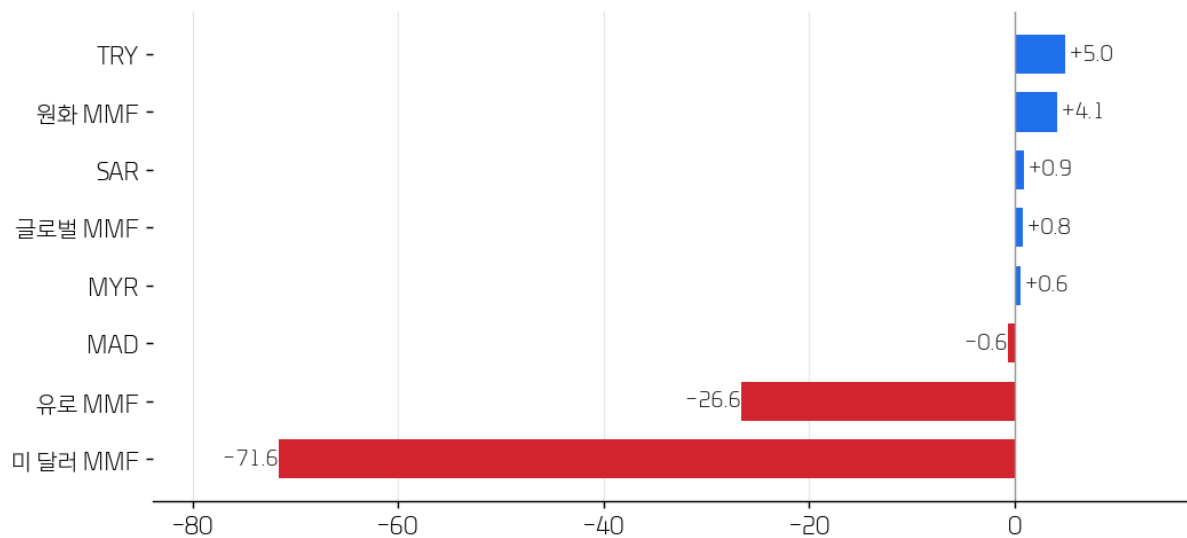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채권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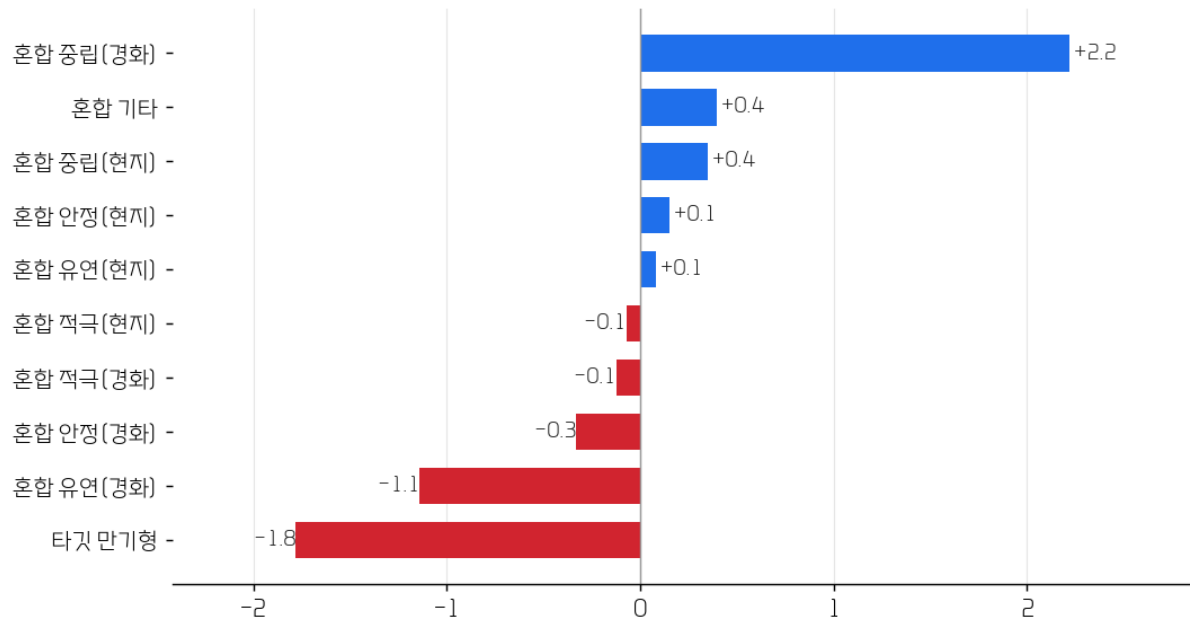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머니마켓 — 세부 종목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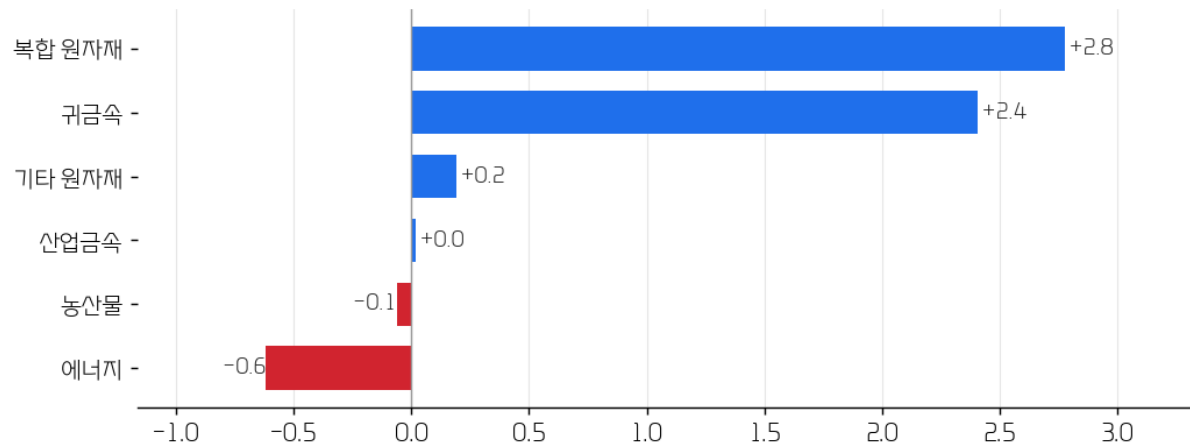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혼합자산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원자재 — 중분류별 4 주 누적 순유입 (USD bn)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. 금액(Estimated Net Flows, USD)·유입/유출 펀드 수. 매월 첫 주에 숫자가 튀는 특성(월간 보고 펀드)이 있어 4 주 누적·과거 대비 위치로 해석. 제공 수치 기반 분석이며 투자권유 아님.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